

해명자료

문의 : 운영지원과 최영해 과장(☎750-2900)
운영지원과 이상욱 서기관(☎750-2923) swlee815@kcc.go.kr

한국일보 보도[7.26]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

‘11. 7. 26(화) 한국일보의 “KT와의 10년도 모자라? 방통위 계속 동거 요구 눈살”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를름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보도 내용

“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과 한지붕 밑에 있어 영 어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, 방통위는 10년째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. 그런데 KT가 새 건물로 옮겨 가려 하자 방통위는 ‘같이 이사가자’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”고 보도함

□ 해명 내용

1.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KT 광화문사옥의 2013년 이후 재건축 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은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힙니다.
2.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위치 고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, 정부의 중앙 및 과천청사 기관 배치방안에 따라 방통위의 이전 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를 방침입니다.
3. 또한, 청사 이전이 확정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KT 광화문사옥(12~14층)은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유희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. 끝.